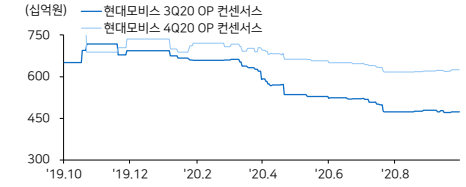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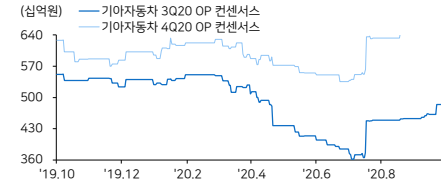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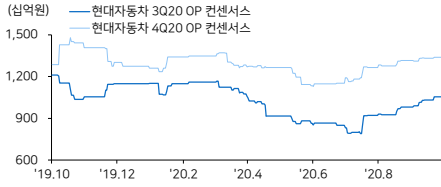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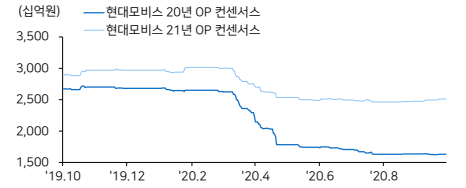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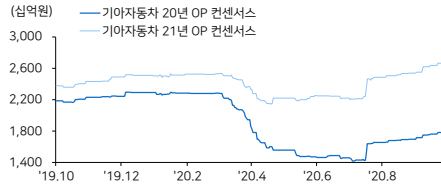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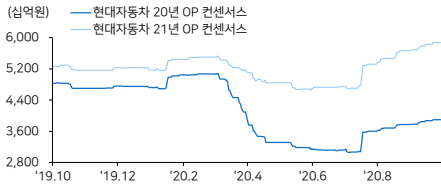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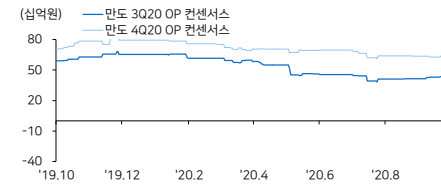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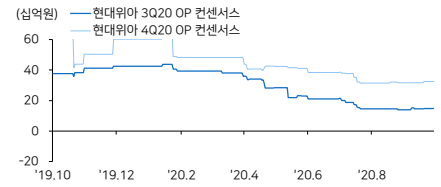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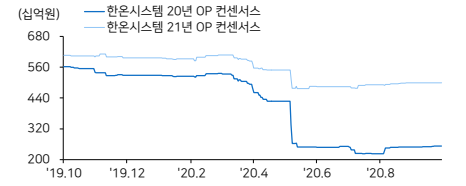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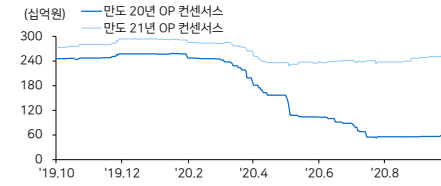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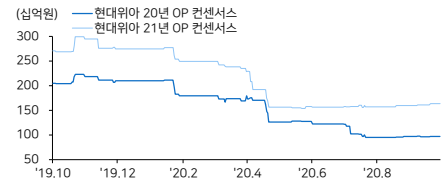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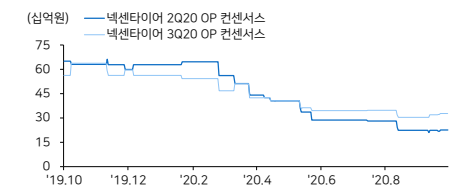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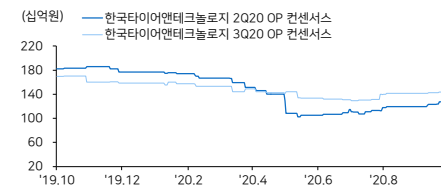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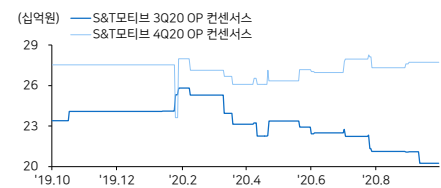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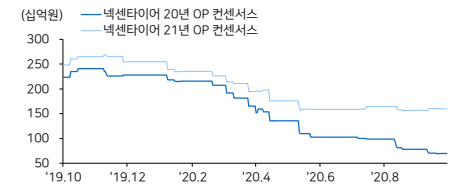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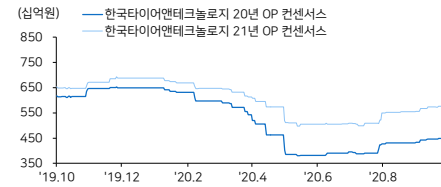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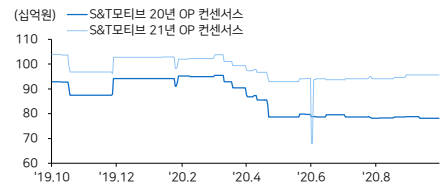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도심을 나는 '플라이카' 2028년 상용화 (조세일보)

현대차가 10년 안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 신문과 인터뷰한 신재현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부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5~6명을 태우고 대도시권을 비행할 수 있는 대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bit.ly/34wYm04>

현대모비스, 맞춤형현실 기업에 300억 투자 (서울경제)

현대모비스가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영국 기업 엔비직스에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AR HUD는 차량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방 도로와 매칭해 전면 유리창에 투영해주는 차세대 안전 편의 장치. <https://bit.ly/34z2oFh>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한국 차 관세 부과 가능성 없어" (연합뉴스)

맷 퍼텐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 회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EU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에 관세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https://bit.ly/2f9nscl>

미국 홍보팀 해체한 테슬라, 회사나 전보 조처...왜? (매일경제)

테슬라가 미국 홍보팀을 해체. 로이터 통신은 광고와 마케팅에 수백만 달러를 집행하는 타사와 달리 테슬라는 전통적인 홍보 채널을 외면해왔으며 홍보의 주요 창구는 39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36LNvbJ>

중고차까지 팔겠다는 현대차...독일까? 약일까? (MBC뉴스)

현대차가 중고차까지 파는 게 맞느냐를 놓고 관련 업계가 들쭉거리는 가운데, 내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차 전무와 중고차매매조합 대표 등이 중심으로 채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ttps://bit.ly/33FUdYU>

"현대위아 등 현대차 부품 3사, 전기차 대응 높다" (아주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그룹 계열 부품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bit.ly/30JlQwH>

기아차 확장공장,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IT조선)

기아자동차가 화성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8일까지 폐쇄한다. 생산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서임. 확진자는 모진상과 추석연휴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noms61>

머스크 "올해 테슬라 전기차 50만대 생산 가능" (연합뉴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 메모를 발송했다고 보도. <https://bit.ly/3llr0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